



오성호(총신대)

## 1. 서론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 제4종의 노래(이사야 52:13-53:12)를 메시아적으로 읽었는가?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대리 속죄를 담당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사야 53장에 관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의 전통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가 어떤 관점을 가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다.<sup>2</sup>

1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19929).

2 사53장과 신약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Oh, Abraham S. H., "Jesus and the Fourth

헤게어만(Herald Hegermann)은 그의 책 *Jesaja 53 in Hexapla, Targum und Peschitta*에서 아킬라, 데오도션, 심마쿠스 및 탈굼과 페시타에서의 이사야 53장의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다.<sup>3</sup> 첫 세 개의 헬라이어 역본에서 여호와와 종은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며, 거기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며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당한다. 그는 말하기를,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의 등장 이전에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적 해석이 확고한 전통이 되었을 때에만, 이 해석이 이사야 53장의 기독교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것이 이해된다."<sup>4</sup> 예레미야스(Jörg Jeremias)는, 헤게어만을 따라, 오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 이전 확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에게, 예수는 그의 고난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의 키를 이사야 53장에서 발견한다.<sup>5</sup> 반면에 볼트만(Rudolf Bultman)은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기대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앙 사이의 연속적인 과정에 대해 반발한다. 유대교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모른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적 해석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기독교 사이에는 깊은 도랑이 존재한다.<sup>6</sup> 로울리(Herold Henry Rowley)는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다윗적 메시아의 개념과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단정한다.<sup>7</sup> 모빙클(Sigmund Mowinckel)에 따르면, 유대교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

"Servant Song: A Review of Some Recent Proposals", *Canon & Culture* 12.2 (2018), 187-222; 오성호, "제4종의 노래와 신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견해들", 『한국개혁신학』 57 (2018), 340-374.

3 Hegermann, H., *Jesaja 53 in Hexapla, Targum und Peschitta*, BFCT 56 (Gutersloh: Bertelsman, 1954). 아킬라는 사53장의 종이 메시아라고 이해한다(112). 데오도션에서는, 반-기독교 논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53은 메시아적으로 읽히며,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표적인 고난이다(113-114). 심마쿠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고난을 제의 희생으로 이해하며 예수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114-115).

4 Hegermann, 윌름, 130.

5 Jeremias, Jörg, *pa'ij qeou/ TDNT*, Vol. V., 686, 699, 712-717.

6 Bultmann, Rudolf, 『신약 성서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7), 28; Koch, Klasus, "Messias und Sündenvergebung in Jesaja 53, Targum: ein Beitrag zur der Praxis der aramäischen Bibelübersetzung",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3.2 (1972), 117-118.

7 Rowley, Harold Henr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Oxford, Oxon.: Blackwell, 1965), 90.

며, 유대적 메시야의 고난은 대리 속죄적인 죽음과 연관되지 않는다.<sup>8</sup>

마틴 헝겔(Martin Hengel)은 기독교 이전 시기에 유대교 안에 이사야 53장의 '유효한 역사'가 있다고 가정한다.<sup>9</sup>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에서—원 헬라이어 본문들과 번역들은 물론 히브리 및 아랍어 본문들을 포함하여—이사야 53장의 다양한 수용과 추가적인 발전이 발견된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의 LXX는 중요한 해석적 경향을 띤다." 그는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의 모든 유형이 대속적 고난과 속죄의 인물에 관한 초기 기독교의 선포를 필연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사야 53장의 "입증된 사용과 반향(echo)은 고난 받고 속죄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야적 인물의 전승이 [이미 기독교 이전 시기에] (디아스포라는 물론) 팔레스타인 유대교에 통용되며, 예수와 초대교회는 그것들을 알고 거기에 호소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고 본다.<sup>10</sup> 그러나, 기독교 이전 시기에 관한 헝겔의 이해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물론 기독교 이후 시기에 관하여는 유대교 내에서 고난의 종을 메시야로 이해하는 분명한 해석들이 나타난다. 주후 2세기 이후에는 유대교 내에서 이사야 53장의 문장들로 묘사되는 고난받는 메시야에 관한 언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페이지(Sydney H. T. Page)에 따르면, 순교자 저스틴의 트리포와의 대화에는 메시야가 이사야 53장에 근거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유대인 트리포가 인정하고 있다.<sup>11</sup> 주후 약 200년 경이라고 알려진 바벨로니아 탈무드의

산헤드린(Sanhedrin)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종-메시야를 나병환자로 지칭한다.<sup>12</sup> 「룻기 랍바」(Ruth Rabbah)는 룻기 2장 14절에 관한 논평에서 이사야 53장 5절을 암시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야의 개념을 표현한다.<sup>13</sup> 또한 「탈무드 소타」(Sotah) 14a절(의심 되는 간음)에서 랍비 시믈라이(Simlai)는 이사야 53장의 종의 고난에 관한 여러 구절을 모세에게 적용함으로써, 제4종의 노래의 고난의 종은 모세를 지칭한다고 해석한다.<sup>14</sup> 특히 기독교 이후의 많은 유대인들은 제4종의 노래를 메시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sup>15</sup> 헝겔은 이것들이 기독교적인 해석의 영향이 아니라 기독교 이전 시기에 유대교에서 나타났던 이사야 53장의 '유효한 역사'가 발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야가 속죄를 이룬다는 개념이 중간기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헝겔은 "이사야 53장의 히브리(MT 및 1QIsa) 및 헬라 본문들—그리고 아마도 다니엘 11-12장, 4Q540-541(아랍어 「레위의 비록(秘錄)」; Aramaic Apocryphon of Levi), 「베냐민의 유언」(Testament of Benjamin) 3장 8절—을 제외하고 대속적 고난의 주제는 유대 문헌에서, 특히 구조의 고양이나 그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곳, 즉 예를 들어, 「에녹 1서」나 「전쟁의 두루마리」의 우월감의 찬송(Self-Glorification Hymn 4Q491)에서 배경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논평한다.<sup>16</sup> 이것은 그가 기독교 이전 시기에 메시야로서 고난의 종의 대리 속죄 개념의 흔적이 남아 있

8 Mowinckel, S., *He That Cometh (Han Som Kommer): The Messiah Concept in the Old Testament and Later Judaism* (Oxford: Basil Blackwell, 1959), 327, 329.  
9 Hengel, Martin, "The Effective History of Isaiah 53 in the Pre-Christian Period", Janowski Bernd and Peter Stuhlmacher (e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76.  
10 Hengel, 윌름, 75-76: 145-146. 그는 제4종의 노래에 나타난 고양의 주제가 단11-12에서 집단적으로, 「모세의 유언」 10:9-10에서 암시적으로, 「지혜서」 2 & 5에서 명백히, 그리고 우월감의 찬송(4Q491)에서 개연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여러 곳에서 종의 고양은 왕들 및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결합된다고 본다. 그는 또한 1QIsaa, 「레위의 비록」(4Q541) 및 우월감의 찬송(4Q491)은 메시야적 해석의 증거라고 보며, 「베냐민의 유언」 3:8에서는 종의 대속적 고난의 주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11 Page, Sydney H. T., "The Suffering Servant between the Testaments", *New Testament Studies* 31, no. 4 (2009), 491;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a Jew*, Chapters 36, 39, 68, 77, 89, 90. 물론 트리포는 예수의 죽음은 메시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Page에 따르면, 저스틴의 저작은 주후 2세기 중반

이다.

12 Driver, S. R. and Adolf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New York: Hermon Press, 1969), 7: Jeremias, 윌름, 690 n. 271; Page, 윌름, 491.  
13 Driver and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9; Rabinowitz, L., *Ruth: Midrash Rabbah* (London: Soncino, 1939), 64; Page, 윌름, 492.  
14 [https://juchre.org/talmud/sotah/sotah1.htm#14a\(2020.3.19.접속\);](https://juchre.org/talmud/sotah/sotah1.htm#14a(2020.3.19.접속);)  
<http://christianity.stackexchange.com/questions/43217/is-there-evidence-that-isaiah-53-was-viewed-as-a-messianic-prophecy-within-judai> (2020.3.19. 접속)  
15 Boyarin, Daniel, *The Jewish Gospels: the story of the Jewish Christ* (New York: The New Press, 2013), 152.  
16 Hengel, 윌름, 76.

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자기모순적이다. 여기서 행엘은 방법론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든지, 모호한 증거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모른다.

행엘은 예레미야스가 「신약신학사전」(TDNT)의 “**paij qeow**” 항목에서 이사야서의 19개의 중 본문을 연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네 가지 오류의 원인들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방법론을 설정한다.<sup>17</sup> 그중에 둘째 및 셋째 원인에 대한 행엘의 비평은 그가 가진 방법론적 오류를 드러낸다.<sup>18</sup> 예레미야스에게는, “현대적인 주해의 원자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은 전제될 수 없다. 우리에게서 서로 경쟁적인 해석들 예컨대, 집단적인 해석과 종말론적인 구속자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동일한 본문과 주제의 다른 측면들로서 나란히 양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행엘은, 예를 들면, 종의 고양, 강국들의 놀람, 대속적 고난에 관한 개별적 문장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sup>19</sup>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종의 고양에 관한 단순한 언급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대로 종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리 속죄하는 메시아로 해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경쟁적인 해석(즉, 집단적인 해석과 종말론적 메시아적 해석)이 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쪽이 더 본문과 문맥이 제시하는 증거력에 있어서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사야는 그의 책에서 **קָבַע**(에베드/중; 아바드/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부 같은

17 Jeremias, *윗글*, 682-683.

18 Jeremias의 네 가지 오류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첫째와 넷째이다. 첫째는, “종의 노래에 관한 현대적인 구분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53장이나 종의 노래들에 국한해서 연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제4종의 노래를 볼 때에도 이사야서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엘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제4종의 노래를 연구할 때 이사야서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연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또한 넷째는, “디아스포라는, 부분적으로는 LXX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서, 해석에 관한 다양한 전통들을 개발시켰고, 예컨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헬레니즘적인 유대인들과는 동일한 수준에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엘은 LXX 변종들조차도 팔레스타인 선문들(Vorlagen)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팔레스타인인 헬레니즘적 유대전통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19 Hengel, *윗글*, 79.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sup>20</sup> 그렇다면 우리도 구체적인 한 본문(제4종의 노래)에서 종의 개념을 (물론 이사야서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의 목적은 MT(맛소라 사본)의 제4종의 노래에 나타난 종이 신약에 나타난 대로 대리 속죄적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해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스에게는, “단순한 암시 혹은 개별적인 표현들을 임의적으로 다른 문맥에 적용하는 것과 신중한 해석과는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엘은 대개는 암시와 의식적인 해석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sup>21</sup> 그러나 단순한 제4종의 노래에 대한 암시만으로, 그 본문이 고난의 종을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행엘은 이러한 두 가지의 잘못된 전제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히브리 본문에 있는 대속적인 죽음의 주제는 기독교이전 유대교 문서에서는 다소간 배경으로 후퇴한다.”라고 논평하면서도,<sup>22</sup> 문헌에 단지 이사야 53장에 대한 작은 암시나 언급이 있다는 사실을 인해 그 문헌의 저자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에 관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가정은 많은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의 가정일 뿐이다. 고난 받는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인용이나 언급은 기독교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비록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와 의인들의 고난이 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표현들이 더러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고난받는 메시아의 대리 속죄적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20 이스라엘을 종으로 지칭하는 경우(41:8, 9, 42:19, 43:10, 44:1, 2, 21, 45:4, 48:20, 63:17), 메시아를 종으로 지칭하는 경우(42:1, 49:3, 5, 6, 7, 50:10, 52:13, 53:11), 남은 자들 즉 종의 후손을 종들로 부르는 경우(54:17, 56:6, 65:8, 9, 13, 14, 15, 66:14), 이사야/다윗/엘리아김 등을 가리키는 경우(20:3, 22:20, 37:35, 44:26), 동사로 사용된 경우(섬기다/에배하다/수고하다/일하다 등: 14:3, 19:9, 21, 23, 28:21, 30:24, 43:23, 24, 60:12), 신하의 의미(36:9, 37:5, 24), 노예의 의미(14:2, 24:2), 혹은 나/우리를 낮추는 표현(36:11).

21 Hengel, *윗글*, 80.

22 *윗글*, 146.

대한 단순한 암시나 인용이 아니라, 각각의 저자가 참으로 이사야 53장에 관해 고난받고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해를 가진 것이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제4종의 노래가 히브리 본문인 헬라이어(LXX), 아랍어(Targums), 및 시리아어(Peshitta) 번역본들과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 문헌(1QIsa 및 외경, 위경 등)에 구약 본문대로 전승되었는지를 연구한다. 히브리 본문에서의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적인 인물로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대리적인 속죄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은 신약이 이어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대리 속죄 개념이 신약 이전의 유대 문헌과 LXX(70인역), 탈군 및 페시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행엘이 제시했던 문헌들 가운데 기독교 이전에 기원한다고 알려진 유대교 문헌들과 특히 히브리 본문에 관한 최초의 세 번역인 LXX, 탈군, 페시타에 나타난 제4종의 노래의 이해를 살펴봄, 기독교 이전의 유대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적인 신학의 근거가 되는 고난 받는 메시아적인 이해를 제4종의 노래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 2. 유대교 문헌들: 외경 및 위경 등

행엘은 유대 문헌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적으로 이해하며 종종 고난을 포함한다고 본다.<sup>23</sup> 그러나 결정적으로 기독교 이전 유대교에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대한 종말론적 고난의 종 인물과 연결된 기대는 증명될 수 없다고 인정한다.<sup>24</sup> 페이지는 외경 및 위경의 유대교 문헌들을 검토한 후에 결론적으로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 개인적인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sup>25</sup> 그러나

23 윌슨, 75-76.

24 윌슨, 140.

25 Page, 윌슨, 488.

모빙글에 따르면, 유대교에서의 메시아의 고난은 기독교회에서의 메시아의 고난과 구별되어야 한다. 유대교의 메시아에서는 고난과 죽음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유대교적 메시아의 고난은 대리 속죄적인 죽음과 연결되지 않는다.<sup>26</sup>

(오는 제2의) 엘리야에게 주어진 말씀인 시락서 48장 10절은 이사야 49장 6절과 말라기 4장 6절[히, 3:24]을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벤시라의 종이 대리 속죄적 고난을 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행엘에 따르면, 벤시라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을 직접적으로 제2의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sup>27</sup>

행엘은 「에녹 1서」의 「비유의 책」(Parables [Similitudes] of Enoch; 72-82장)이 첫째, 둘째 및 넷째 종의 노래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sup>28</sup> 여기서, 에녹이 메시아적 인물로 나타나는데, 의인, 택자, 인자,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 문헌의 저자는 에녹을 이사야의 종과 동일시하고 있다.<sup>29</sup> 1 에녹 47장 1-4절은 ‘의인의 피’를 흘림에 대해 말하며, 의인이 인자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이사야서의 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sup>30</sup> 에녹1서의 인자는 의로운 심판관으로 기능할 뿐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

26 Mowinckel, 윌슨, 328-329. 교회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나 고난을 받으며, 죽으며, 부활한다. 그러나 유대교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다고 언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일인이 아니다. 회당에서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만 죽지 않으며, 죽는 메시아를 알고 있을지라도 그는 고난을 받아야 하지는 않는다(즉, 메시아 벤 요셉).

27 Hengel, 윌슨, 83; Jeremias, 윌슨, 686. Page에 따르면, 시락(Sirach)서의 연대는 180-190 BC이다. Page, 윌슨, 482. Jeremias에 따르면, Sir. 11:13은 사52:15를 고난 받는 의인들에 적용한다. Jeremias, 윌슨, 685.

28 Hengel, 윌슨, 99-101. Hengel은 에녹 1서가 40-66 BCE에 기원한다고 보나, Page는 주후 1세기로 본다. 또한 Charlesworth는 예수와 동시대인 헤롯 대제와 헤로디안의 시대로 본다. Hengel, 윌슨, 99; Page, 윌슨, 482; Charlesworth, James H., "The Date and Provenience of the Parables of Enoch", Darrell L. Bock and James H. Charlesworth (ed.), *Parables of Enoch: A Paradigm Shift*, (London: New York: Bloomsbury, 2013), 56.

29 Page, 윌슨, 482.

30 윌슨, 483.

는다. 이런 이해는 유대교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행엘은 MT 이사야 51장 5절의 “내 팔”을 1QIsaa에서 “그의 팔”로 바꾼 것이 종을 의미하는 메시아적인 해석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이다.<sup>32</sup> 행엘에게는, 1QIsaa 52장 14절에서 MT의  $\text{אֲנִי}$  (상하였다) 대신  $\text{אֲנִי}$  (내가 기름 부었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인 메시아적인 해석일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페이지에 따르면, 이것을 메시아적 읽기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변이는 요드(\*)인데, 그것은 1QIsab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1QIsaa에는 불필요한 요드가 여기 저기 나타나기 때문이다.<sup>34</sup>

또한 1QIsab 53장 5절에서는 MT의  $\text{אֲנִי}$  자리에 공란으로 나타나는데, 1QIsaa에서는  $\text{אֲנִי}$  (그가 그를 찢었다)가 나타난다. 행엘에 따르면, 이것은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적 이해를 함축할 수 있다.<sup>35</sup> 그러나, 혹시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QIsaa의 번역자가 MT의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불확실하다.

「레위의 비록」(4Q540-541)은, 퓨치(E. Puech)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그것은, 행엘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죄를 가져오는 종의 죽음과 고난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sup>37</sup>

많은 저자들은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2-20절 및 5장 1-6절의 제4 종의 노래

와의 관련성을 본다.<sup>38</sup> 그러나 행엘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사야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많은 암시들에 의해 지지되는,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종교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sup>39</sup> 페이지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0절-5장 23절은 이사야서의 종 본문을 여러 번에 걸쳐 암시하지만, 거기서 ‘의인’은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집단적인 명칭이며, 그 고난은 대리 속죄적인 고난이 아니다.<sup>40</sup> 행엘은 이 책에 관하여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책을 극복하기 위한 대리 속죄적 고난의 주제는 전적으로 부재하다.”라고 인정한다.<sup>41</sup>

「에스드라 2서」(「에스라 4서」) 7장 28-29절은 “내 아들 메시아가 죽을 것”을 언급하지만, 죽는 메시아의 개념이 기독교 이전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으며,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죄 능력이 없고, 이사야의 고난의 종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sup>42</sup>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의 죽음의 독특성을 제거한다.

「감사 찬송집」(Hymns of Thanksgiving)은 고난받는 종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리 속죄적인 고난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43</sup> 또한 「공동체 규율집」(Community Rule)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원회의 고난이 속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sup>44</sup>

예레미야스와 페이지는 「베냐민의 유언」 3장 8절이 이사야 53장 5절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레미야스는 이것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독교 이전 교리의 증거로 보는 반면에, 페이지는 이것이 영어본에서 누락된 사실로 인해,

31 Hengel, 윗글, 101.

32 히브리 본문은 여호와와 구원에 관한 선언으로서, 그것이 쿨란 사본에서 메시아적으로 읽혔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 van der Kooij는 ‘그가 고레스를 지시한다고 본다. Kooij, Arie van der, “Die Alten Textzeugen Des Jesajabuches E. Beitr. Zur Textgeschichte D. Alten Testaments.” Thesis, Univ.-Verl., 1981.

33 Hengel, 윗글, 103-105.

34 G. R. Driver, “Isaiah 52:13-53:12: 윗글,” in *Memoriam Paul Kahle* (Berlin: Topelmann, 1968), 92; Page, 윗글, 485. Brownlee, W. H.는 메시아적으로 읽는다. Brownlee, W. H.,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Qumran Scrolls. I,” *BASOR* 132 (1953), 8-15.

35 Hengel, 윗글, 105. Hengel은 이것을 속13:3과 연결시킨다.

36 Puech, E., “Fragments d’un apocryphe de Lévi et le personnage eschatologique, 4QTestLévi<sup>d</sup> (?) et 4QAJa”, J. Trebolle Barrera and L. Vegas Montaner (ed.), *The Madrid Qumran Congress*, vol. 2, STDJ 11/2, 501; Hengel, 윗글, 118.

37 Hengel, 윗글, 118.

38 윗글, 129. Page에 따르면, Wisdom of Solomon의 연대는 100BC-45AD이다. Page, 윗글, 482.

39 Hengel, 윗글, 132.

40 Page, 윗글, 482.

41 Hengel, 윗글, 132. “지혜서는 기본적으로 다니엘, 쿨란, 이사야 LXX에도 본질적인 의인의 의롭다 함, 죄인의 형벌,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적 기대의 관습적인 개념을 다룬다.”

42 Page, 윗글, 483.

43 윗글, 484.

44 윗글, 485.

그것을 기독교적 영향을 반영하는 후대의 첨가로 본다.<sup>45</sup> 행엘은 요셉이 의인으로서 죽지만, 대리 속죄를 이루는 유일한 죽음은 아니라고 인정한다.<sup>46</sup>

아킬라, 데오도선, 심마쿠스에서는 이사야 53장을 예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기독교-후기(주후 2세기)이며, 기독교적 영향일 수 있다.<sup>47</sup>

결론적으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고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죽는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외경과 위경 등의 유대교 문서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행엘은 “기독교 이전의 고난받는 메시아적 인물의 극히 적은 흔적의 관점에서, 우리는 콤파를 제외하고는 단지 몇 개의 분명한 기독교 이전 ‘메시아적 본문’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 본문이 메시아적으로 해석되는 곳에서도 종말의 승리와 재판장의 주제가 우세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메시아적 고난의 전통들은 종말의 기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변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sup>48</sup> 이사야 53장이 유대교 안에서 대리 속죄적인 고난의 종으로 이해된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 3. 70인역(LXX)

LXX는 주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기원하며, 늦어도 주전 150년 이전에는 확립되었다.<sup>49</sup> LXX는 결코 통일된 작품이 아니며,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다는 상당한 의역을 사용한 해석학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sup>50</sup>

LXX의 제4 종의 노래에 있어서 메시아적인 해석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갈린다. 한(Ferdinand Hahn)은 오일러(Karl Friedrich Euler)를 따라 “이사야 53장의 LXX 번역에서는 메시아적인 해석은 인식될 수 없다.”고 논평한다.<sup>51</sup> 사프(David A. Sapp)는 결정적인 순간에 LXX가 종의 운명에 관하여, 히브리 본문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낸다고 본다.<sup>52</sup> 그는 LXX 이사야 53장에 복음을 설명하는 속죄를 함축하는 여러 문장들이 있지만, LXX 본문은 그런 그런 암시들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신학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본다.<sup>53</sup>

그러나 행엘에 따르면, “LXX에서 대리 속죄적인 고난의 주제가 몇 가지 점에서 MT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그것은 모호하지 않게 남아 있다.”<sup>54</sup> 라아토(Antti Laato)는 “이사야 53장의 70인역 번역자들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여러 곳에서 약화시켰다”라고 보았다.<sup>55</sup> 고난의 종에 관한 MT의 용어는 과격하고

45 Jeremias, 윗글, 685; Page, 윗글, 484; Hengel, 윗글, 138, 77. 행엘도 기독교적 재작업이라고 보며, 이 본문이 논쟁적임을 밝힌다.

46 Hengel, 윗글, 140.

47 Hegermann, 윗글, 111-115; Page, 윗글, 487.

48 Hengel, 윗글, 89.

49 Brotzman, Ellis, *Old Testament Criticism* (Grand Rapids, 1994), 112. 행엘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헬라어 버전은 유대에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위협이 거부되고 마카비의 자유 투쟁이 성공적이었던 때에 유래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전 146년 카르타고의 파괴 직후(Seeligman) 혹은 주전 141년 미드리데이츠 왕에 의한 셀루시드 바벨론 정복 직후(Kooij)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Hengel, 윗글, 119.

50 Hengel, 윗글, 120.

51 Hahn, Ferdinand,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ihre geschichte im fruhen Christenum*, 2nd ed., FRLANT 8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154, n. 1; Euler, Karl Friedrich, *Die Verkündigung Vom Leidenen Gottesknecht Aus Jes 53 in Der Griechischen Bibel* (Stuttgart-Berlin: W. Kohlhammer Verlag, 1934), 122-123.

52 Sapp, David A. “윗글, and MT Versions of Isaiah 53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Atonement”, William H. Bellinger, Jr. and William R. Farmer (ed.),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171. 11b에서는 ‘종’을 동사로 해석하며, 4b와 10a에서는 종의 불행에 관한 신적 의도를 제거하며, 8a에서는 종의 고난을 정의의 관점으로 변경시킨다. 8-11a에서는 종의 죽음을 얼버무리며, LXX에서는 종이 죽으려는 찰나까지는 가지만 죽음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Sapp, 윗글, 173, 176, 177, 179.

53 Sapp, 윗글, 187; Bradshaw, Vincent M., “Provenance and the Old Testament Peshitta” (Clark’s Summit University, 2018), 25.

54 Hengel, 윗글, 124.

55 Laato, Antti, *Who is the Servant of the LORD?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s on Isaiah 53 from Antiquity to the Middle Ages* (Wiona Lake, IN: Eisenbrauns, 2012), 84. Bradshaw, 윗글, 25에서재인 용. Brown은 대리 속죄적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5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본다. (a)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중보, (b) 중보자는 죄가 없으며 의롭다, (c) 이 대리적 행동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d) 중보는 자발적이고 종의 자의에 의한 것이다, (e)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대리 속죄적인 행동을 초래하신다. Brown, Michael L., “Jewish Interpretation of Isaiah 53”,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Encountering the Suffering Servant in Jewish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12), 79. Bradshaw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LXX 제4 종의 노래가 어떻게 메

강하지만, LXX에서는 약화되고 명료화된다.<sup>56</sup>

LXX의 제4종의 노래안에 종의 대리 속죄적인 고난의 주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절에서는, LXX 번역자는 질병을 죄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LXX에서가 MT보다 속죄 사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MT 4ab, “확실히 그는 우리의 죄를 졌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지녔다”가 LXX에서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로 된다. MT는 은유적이거나, LXX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종의 고난을 분명히 표현한다.<sup>57</sup> 여기서 חָלַל (질병)에 대한 번역으로 죄(amartia, 하마르티아)가 나타난다. **amartia**는 חָלַל (아본/죄악; 53:5, 6, 11), אָשַׁם (아삼/속건제물; 53:10), אָשַׁם (헤트/죄; 53:12), אָשַׁם (폐사/허물; 53:12) 등을 번역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된다.<sup>58</sup>

4cd에서 MT의 “(그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으며,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가 LXX에서는 “(그가) 곤란과 역경과 학대 아래에 있다”로 번역된다. 이것은 LXX에서 좀 더 유순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LXX에서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구체적인 동작의 유형이 서술되지 않고 단지 종의 고난이 심하다는 것만 표현된다. 또한 MT에서의 동작의 주체는 하나님이나, LXX에서는 하나님의 주체가 생략되어 명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LXX는 종의 불행에 대한 신적 의도를 제거했다. 종을 고난받게 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와 의지가 MT에서는 53장 4, 6, 10절에서 나타난다. LXX는 4절에서 주어 하나님을 생략한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체를 명백히 한다. 10절에서는 여호와가 종을 청결케 한다고 하므로, 종을 고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제거한다.<sup>59</sup> 사프는 이것을 MT로부터 속죄를 도려내는 LXX의 주요

양상 중 하나라고 본다.<sup>60</sup>

5절에서는 종의 고난의 표현이 유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리 속죄적 고난이 표현된다. MT 5a의 “그가 찢렸다” 및 5b의 “그가 몽그러졌다”<sup>61</sup>가 “그가 상했다” 및 “그가 약해졌다”로 번역된다. 강한 용어들이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sup>62</sup> 그러나 여전히 LXX에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종이 찢림을 당하고 상하게 되었다. 5a의 허물(폐사)이 무법(anomia)으로, 5b의 죄악(아본)이 죄(amartia)로 번역된다. MT 5c에서 מוֹסֵר (무사르/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징계가 종에게 내려진다.<sup>63</sup> 5d에서 חָבַר (하부라/채찍)는 채찍 맞음을 의미한다. 이 단어들은 대리 속죄적인 주제를 나타낸다. 5절에서는 LXX에서도 여전히 대리 속죄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MT 6c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פָּדַדְנוּ).” 이것을 LXX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의 죄들에 넘겨주셨다 (paredwken).”로 번역한다. 이 단어(paradidwmi)는 LXX에서 대리 속죄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פָּדַד (파가/만나다; 53:6, 12)와 חָבַר (아라/붓다, 53:12)를 번역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MT는 우리 모두의 죄를 종에게 지운 것이 강조되었고, LXX는 하나님께서 종을 우리의 죄에 넘겨준 것을 강조한다.<sup>64</sup> 또한 LXX는 아본을 죄(하마르티아)로 번역하며, 히브리 단어가 갖는 죄에 대한 세밀한 뉘앙스를 제거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 속죄 사상이 나타난다. 7a에서는 종의 고난에 관한 용어가 순화된다. MT,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고난을 받았다”가 LXX, “그가 잘못 취급 받았다.”로 된다.

56 시야적 개념을 약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Bradshaw, 윗글, 26-29.

57 Kim, Hyukki (Kim,H), “Textual Tradition in Hebrew and Greek: Isaiah 52:13-53:12”, 2008, 8.

58 Kim,H, 윗글, 15.

59 윗글, 16.

60 Bradshaw, 윗글, 29.

60 Sapp, 윗글, 176.

61 혹은 “으깨졌다”. 이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온 몸이 으스러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Motyer, J. A., 「이사야 주석」 (서울: 솔로몬, 2018), 959.

62 Kim,H, 윗글, 9.

63 평화가 없던 곳에(48:22) 종으로 말미암아(53:5) 평화의 언약이 실현된다(54:10). Motyer, 윗글 (2018), 960.

64 Kim,H, 윗글, 21.

MT 8a의 “강압과 재판에 의하여 그가 취해졌다”에서 “취해졌다”는 “끊어졌다, 제거되었다”는 의미로 종의 죽음을 의미한다.<sup>65</sup> 그런데, LXX는 강압 대신 굴욕(humiliation)을 사용한다. “그의 굴욕에서 그의 공평(심판)은 취해졌다 [제거되었다]”. 여기서, LXX는 종의 죽음을 단지 불공평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종의 압제자들의 강압적인 심판 행위들로부터 그들이 종을 거절했던 정의로 관심을 변경시킨다.<sup>66</sup> 8c에서 MT는 “그가 산 자의 땅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인데, LXX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부터 취해지고(airw) 있다.”로 종의 분명한 죽음이 나타난다. 사프가 53:8-11a에서 LXX에서는 종의 죽음을 얼버무리고 있다고 논평하지만,<sup>67</sup> LXX 역자는 명백한 종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a와 8c에서 동일한 단어(airw)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8a에서 그의 공평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그의 죽음(8c)을 전제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53:8d에서, MT는 “재앙(מַדְבָּא, plague)이 그들에게 임해야 할 내 백성의 허물(חַטָּאת)로 인하여”인데, LXX는 “내 백성의 불법(lawlessness)을 인하여 그가 죽음에 이르렀다(he was led to death)”이다. MT에서의 허물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LXX에서는 죽음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라기 보다는 8a의 사상과 충첩되어 죽음의 의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MT 8절에서의 종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LXX에서도 유지된다. 그 죄는 내 백성의 불법을 인한 대리 속죄적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대리 속죄적 본문인 10b에서 LXX는 현저하게 대리 속죄적 개념을 제거한다. 10bc에서, MT는, “만일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그는 날들을 길어지게 할 것이다.” LXX는 이것을, “만일 당신들[2.pl]이 죄에 대한 희생을 드리면, 당신들[2.pl]의 영혼은 장수하는 자손을 볼 것이다.”로 번역한다. 여기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종을 제공하

65 카일, C. F. and F. 델리치, 「이사야(하): 카일 델리취 구약주석」(Vol. 19;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7), 341.

66 Sapp, 윗글, 177.

67 윗글, 177.

는 주님 혹은 종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고난받게 야기했던 악인들에게 적용한다. 악인들 즉 청중(1-7절에서의 ‘우리’)은 종의 영생에 참여할 것이다. MT는 종의 자발적 속죄 행위와 그 효과를 강조하고, LXX는 종에게서 독자에게로 강조를 옮기며, 종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청중들에게 전달된다.<sup>68</sup> 5-6절과 11-12절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종의 대리 속죄적 고난이 그 죄를 속죄하고 취소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MT에서는 종 자신이 그의 생명을 아삼(속건 제물)으로 즉 속죄하는 희생 제사로 드러진다. 대조적으로 헬라 본문은 조건절로 구성되어, 전에 제 길로 갔던 회중들이 종에게 약속된 구원의 몫을 받기 위해, 그들이 드리는 죄제를 요구한다.<sup>69</sup>

요약하면, LXX가 종의 고난의 용어에 있어서 순화되고, 종을 고난받게 하려는 여호와와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리 속죄적 종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종이 개인적인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것은 LXX 번역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탈굄 52장 13절에서 ‘메시아’가 삽입된 것과는 달리, LXX에는 52장 13절뿐만 아니라 전체 노래에 종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표시가 분명하지 않다. 13b에서 사용된 높아짐을 나타내는 3중적인 표현(מָרַחַק, מָרַחַק, מָרַחַק)은 LXX에서는 두 개의 단어 짝으로 번역된다.<sup>70</sup> 고양되고(ὕψωθήσεται), 영화롭게 되다(δοξασθήσεται).<sup>71</sup> 이 단어의 짝은 이사야 4장 2절의 LXX 번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13b는 이사야 4장 2절과 연관된다. 행엘은 종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거나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집단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해석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LXX 4장 2절에서 고양

68 Sapp, 윗글, 182; Hengel, 윗글, 126; Kim, H, 윗글, 17.

69 Hengel, 윗글, 126.

70 히브리 본문의 삼중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및 보좌에 앉으심의 세 가지 행위를 상기시킨다. Motyer, 윗글 (2018), 945; Keil & Delitzsch, 「이사야(하)」, 322.

71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행엘에 따르면, מָרַחַק은 ‘고양되다’로 번역되고, מָרַחַק은 생략되고, מָרַחַק은 ‘영화롭게 되다’로 번역된다. Hengel, 윗글, 121. Kim은 ὕψωθήσεται가 세 단어를 카탈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본다(3:16, 5:16, 13:2, 19:13, 30:18, 37:23, 40:9, 25, 52:8). Kim, H, 윗글, 11.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본문과의 상호 본문성 때문에 이사야 52장 13절의 종의 메시야일 수는 없다. 그런데, 행엘에 따르면, 헬라이어 두 단어의 짝은 5장 16절 및 33장 10절에서도 나타난다. 거기서 고양되고 영화롭게 되는 자는 여호와시므로, 여호와와 종말의 행위는 고양된 종의 행위와 상호 치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sup>72</sup> 이렇게 본다면, 여호와께 쓰인 삼중적인 고양의 언어가 종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5:16, 33:10)은, LXX 번역자가 종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갖는 메시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것(4:2)은 LXX 역자에게 단지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LXX 제4종의 노래에서는 종의 고난과 죽음의 대리 속죄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MT의 많은 언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메시야적인 종의 대리 속죄적인 개념이 약화되고, 오히려 여호와와 종 이스라엘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LXX 번역자가 그 고난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첫째, LXX에서는 메시야의 왕적 개념이 약화된다. 2a에서 **נַיִן**(요넥/ 순)는 ‘연한 순(young plant)’이다. ‘연한 순’의 사상은 MT에서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됨으로써 메시야적 함의를 갖는다.<sup>73</sup> 특히 왕적인 메시야로서의 종의 신분을 함축한다. 그런데, 2a가 MT는 “그는 주의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났다”인데, LXX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린 아이로서 보고했다.”로 번역한다.<sup>74</sup> 따라서 ‘아이, 뿌리’가 LXX에서는 종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다.<sup>75</sup> 고로 LXX에서 종의 메시야적 왕이라는 개념은 약화되며, 오히려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강조된

다.<sup>76</sup> 특히 탈군에서는 이스라엘이 더욱 강조되어 2절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술이 된다.<sup>77</sup>

둘째, LXX는 MT에 나타난 종의 자발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53장 10절(자신을 내어 주다), 53장 12절(자신을 죽음에 부어 주다)에서 MT는 종의 자발적 고난과 희생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으나, LXX는 53장 10절에서 그 주체를 사람들로 바꿔 버리고, 53장 12절에서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버림으로써 주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중보자의 자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sup>78</sup> 53장 10-11절에서, MT에서는 보고,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종이지만, LXX에서는 종을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의롭게 하다’의 주체가 MT에서는 종이지만, LXX에서는 하나님이다.<sup>79</sup> 12c의 MT,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 부었기 때문이다”에 대해 LXX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죽음에 넘겨졌기(**paredogh**) 때문이다”이다. 여기서 ‘넘겨지다’는 것은 대리 속죄적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MT 12f, “그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다(**וַיִּתְפָּלֵל**)”는 LXX,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가 넘겨졌다(**paredogh**)”와 대응된다. MT에서는 종의 자발적 죽음이 강조되었으나, LXX에서는 속죄 죽음이 수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LXX는 종의 고난을 약화시킨다. MT 10절은 주님을 주어로 하여 “원하다”를 두 번 사용한다(10a,d). 10a는 MT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 받게 하시기를 기뻐[원]하셔서 [그에게] 병들게[질고를 당하게] 하셨다.”<sup>80</sup> MT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을 고난받게 하려는 의도를 강조하지만, LXX는 종의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며, LXX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을 그의

72 Hengel, 윗글, 122. 이런 관점은 이사야에서 종종 발견된다. 사59:20에서 종말론적인 여호와와 오심이 메시야적 인물의 몸으로 대체된다. 오성호, 「56-66장을 중심으로 본 이사야서의 종말론 신학」(서울: 솔로몬, 2012), 201.

73 53:2, (연한 순이) 올라오다//11:1, (씨앗) 나오다.

74 LXX는 “그가 자라났다”를 “우리가 선언했다”로 바꾼다.

75 Ekblad, E. R., *Isaiah's Servant Poems According to the Septuagin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no place: Peeters; Hadleigh: BRAD, 2000), 198-99.

76 Kim, H, 윗글, 15.

77 Koch, 윗글, 128.

78 Bradshaw, 윗글, 28-29.

79 Kim, H, 윗글, 19.

80 상함과 질고는 나병을 가리킬 수 있으나, 은유적으로만 그렇다. Hengel, 윗글, 125.

고난에서부터 건져 내시는 구원을 강조한다.<sup>81</sup> 10c-11a LXX에서는 주님이 종의 고난을 단축하기를 원한다. 사프에 따르면, 종은 고난을 끝내어서 그의 사형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sup>82</sup> 4cd에서도 종을 고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제거한다(위를 보라).

넷째, LXX 사53:10에서 종은 청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재앙(**plhghj**)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뻐[원]하신다(LXX 10a).”<sup>83</sup> 3절과 4절 및 10절에 나타나는 **thj plhghj** (the plague, 재앙)는 질병을, 정결을 필요로 하는 죄와 부정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84</sup> 이것은 “종의 무죄성”을 무효화한다.<sup>85</sup>

브라운(Michael L. Brown)에 따르면, 메시아적 해석은 유대적 사고의 두드러진 방식이 아니다.<sup>86</sup> 초대교회의 교부 중의 한 사람인 오리겐에 따르면,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종이 실제로 개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으로 대표되는 선택된 민족을 나타낸다는 집단 이론을 믿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한번은 내가 현자라고 여겨졌던 어떤 유대인과 벌였던 논쟁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 예언들(즉, 사52:13-53:12)을 인용했다. 거기에 내 유대인 대적자는 이 예언들은 유대인들의 많은 이방 나라에 흩어짐 때문에 많은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흩어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한 개인으로 간주된 전체 백성들을 언급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당신의 형상은 사람들 가운데 호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와 ‘고난 받는 사람’ 등의 말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다.”<sup>87</sup>

81 Kim.H, 윗글, 18; Sapp, 윗글, 180.

82 Sapp, 윗글, 181.

83 MT 10a,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84 이 단어는 초태생 재앙(출11:1), 유월절 재앙(출12:3) 및 죄에 따라 재앙을 7배를 더하는 기증 징벌(레26:3)에서 나타난다.

85 Bradshaw, 윗글, 28.

86 Brown, 윗글, 62. 그는 유대적 해석의 3대 거장(Big Three)으로 Rashi, Ibn Ezra, Radak을 꼽는다.

87 Aytoun, Robert A.,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Targum”,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3

MT 제4 종의 노래를 집단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서의 개인적인 종을 집단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적인 혹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고난당하고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당하는 개인적인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본다. 이로써 종의 고난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포로 됨이며, 그것을 통하여 종 이스라엘은 열방을 속죄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sup>88</sup> 가장 대표적인 중세의 랍비인 Rashi는 말하기를, “[종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징계를 받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속죄를 받게 된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랍비 요셉 카라(Yoseph Kara)는 “거룩한 자는 그분을 위하여 세계에서 한 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 나라는 전 세계가 보존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죄악을 지고, 그의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있었다.”라고 말한다.<sup>89</sup>

결론적으로, LXX는 MT가 가지고 있는 종의 대리 속죄적 고난의 메시지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으나, (따라서 MT와 함께 LXX를 읽으면 개인적인 종-메시아가 대리 속죄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LXX 해석자와 유대인들이 제4 종의 노래를 ‘개인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포로된 이스라엘이라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 온 세계가 속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제4 종의 노래는 개인적인 메시아의 개념을 약화하고, 종의 고난과 죽음의 자발성과 그의 무죄성뿐만 아니라 종의 고난을 단축하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종을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준다.

(1922), 173; cf. Brown, *Jewish Interpretations*, 62.

88 Knohl, Israel, “The Suffering Servant: from Isaiah to Dead Scrolls”, Green, Deborah A. and Lieber, Laura S. (ed.), *Scriptural Exegesis: The Shape of Culture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Essays in Honour of Michael Fishba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90-94. Knohl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다.

89 Brown, 윗글, 79.

#### 4. 탈군(Targums)

에이툰(Robert A. Aytoun)에 따르면, 이사야 40-66장의 탈군은 대체적으로 히브리 본문과 아주 근접한 문자적 번역이지만, 제4 종의 노래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다. 탈군 저자(Targumist)는 그 자신의 독특한 번역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그 자신의 견해들과 맞추기 위하여 곡해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당대의 유대교적 학자들의 견해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수용된 해석을 보존했다.<sup>90</sup> 시렌(Roger Syrén)은 MT에 없는 탈군 저자의 독특한 용어들이 유대교적 사고를 드러낸다고 본다. ‘메시아’(52:13, 53:10), ‘이스라엘의 집’(52:14), ‘의로운 자들’(53:2), ‘세키나’(53:3), ‘성전’(53:5), ‘포로들’(53:6, 8), ‘게헨나’(53:9), ‘토라’(53:10, 11, 12).<sup>91</sup> 아드나(Jostein Ådna)에 따르면, 52:13에서의 3인칭 단수에서부터 14절에서의 2인칭 단수로의 전환은 탈군 저자를 설득하여, 52:14와 53:3-9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모든 문장을 종-메시아 이외의 인물에 적용한다. 따라서 그는 52:13-53:12를 민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승리적인 메시아에 관한 전형적인 유대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sup>92</sup>

제4 종의 노래의 종은 탈군에서 명백히 종말론적인 (개인적인) 메시아이다. 52장 13a에서 탈군은 내 종 다음에 ‘메시아’를 삽입하면서 종이 메시아임을 명시한다. “보라, 내 종 메시아가 번성할 것이다.” 즉 종은 탈군 저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메시아로 동일시된다.<sup>93</sup> 탈군 저자는 이사야 42장 1절, 43장 10절, 53장

10절에서도 ‘메시아’를 삽입함으로써, 종을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명백히 하고자 한다.<sup>94</sup> 52장 14a에서 MT는 “많은 사람이 그대에게 놀랐던 것처럼”인데, 탈군은 “이스라엘의 집이 여러 날 동안 그를 소망했던 것처럼”으로 번역한다.<sup>95</sup> 이스라엘의 집이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메시아 왕이 도래한다. MT 15a의 “그가 많은 나라들을 뿌릴 것이다”는 탈군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을 흠을 것이다”로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옴으로써 팔레스타인에서 민족들을 추방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96</sup> “왕들은 그들의 손을 입에 대고 조용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탈군 52:15b-d).”

이 승리적인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열방을 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들)을 희생에 넘겨준다. MT 7c는 “그는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이끌릴 것이다”인데, 탈군은 “그는 열방의 강한 자들을 양과 같이 희생에 넘겨줄 것이다”로 번역한다. 이로써 탈군 저자는 종의 고난을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대체한다. 메시아 왕의 심판 앞에서 열방은 무기력하게 할 말을 잃는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그 앞에는 자기의 입을 열거나 말할 자가 없다(탈군 7cd).”

탈군 제4 종의 노래에서 종-메시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원본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구별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비록 오리겐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에 의해서 이 특정한 예언에서 종에 대한 집단적 해석을 견지했다고 이해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탈군에서는 배제되는 것이다.<sup>97</sup>

그러나 이런 탈군의 승리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히브리 본문과는 매우 다르다. 탈군에서는 종의 고난이 제거되어 고난받는 종은 탈군에서는 모든 고난 위

90 Aytoun, Robert A.,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Targum”,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3 (1922), 172-173. 탈군이 번역인지 재저술인지에 관한 논의는 Syrén, Roger, “Targum Isaiah 52:13-53:12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Jornal of Jewish Studies* 40 (1989), 205-208을 참조하라.

91 Syrén, 윌클, 202.

92 Ådna, Jostein, “The Servant of Isaiah 53 as Triumphant and Interceding Messiah: The Reception of Isaiah 52:13-53:12 in the Targum of Isaiah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Concept of the Messiah”, Bernd Janowski and Peter Stuhlmacher (e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189.

93 Aytoun, 윌클, 174.

94 Chilton, Bruce D., *The Isaiah Targum: Introduction, Translation Apparatus and Notes. The Aramaic Bible* (Vol.11; Edinburgh: T & T Clark, 1987), 81, 84, 104; Koch, 윌클, 123.

95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 시간개념(날들)이 추가되어 번역된다.

96 Koch, 윌클, 126.

97 Aytoun, 윌클, 174.

에 고양된 승리적인 메시야가 된다.<sup>98</sup> 이런 저런 방식으로,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해석적으로 주의 '종'에서부터 유대 백성들에게로, 혹은 이방 민족들에게로, 혹은 성전으로 전달되고 분배된다.

종의 고난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달된다. 탈군 14a에서 이스라엘이 메시야를 소망해 왔던 이유는 그들의 얼굴과 용모가 민족들/사람들보다 못하였기 때문이다(탈군 14bc). MT 14bc에서의 종의 고난이 탈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고난 중의 이스라엘은 메시야 왕의 도래로 해방과 회복을 경험한다. MT 2절은 종-메시야의 보잘것없는 시작을 묘사하지만, 탈군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묘사하는 것으로 바뀐다. 탈군 2ab는, “의로운 자들(The righteous)이 그 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보라, 썩트는 새싹처럼, 그리고 뿌리를 물줄기에 뻗친 나무처럼 그들은 증가할 것이다. 거룩한 세대가 그를 필요로 하는 땅에서 많아질 것이다.”로 기록한다.<sup>99</sup> 탈군 2cd는 “그의 모양은 보통 모양이 아니며 그의 위엄은 보통 위엄이 아니며, 그의 광채는 거룩한 광채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존중할 것이다.” 이로써 MT의 종에 대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로 치환되고 있다.

MT 3절에서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당함은 탈군에서 열방들에게로 전달된다. 탈군 3절은 “그때 모든 왕국들의 영광이 경멸을 받고 그칠 것이다. 그들은 실신하고 통곡할 것이며, 보라, 슬픔들의 사람이요 질고를 위해 지정한 자처럼, 그리고 세키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빼앗겨질 때, 그들은 멸시를 받으며 존중히 여김 받지 못할 것이다.”로 번역한다. MT에서는 3절이 전부 종에 관한 기술인데, 탈군에서는 3ab,d에서 종에 관한 기술이 왕국들에게 적용된다. MT 3c의 “사람들의 얼굴을 돌린 자처럼”은 탈군에서 “세키나가 우리로부터 제거된 때처럼”으로 번역하며, 종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이해된다.

98 Adna, 윗글, 191.

99 의인들의 은유는 시1:3(여기서 탈군은 히브리 워딩과 근접함), 및 렘17:8, 탈군 사37:31에서 유다의 집의 의로운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내린 나무에 비유된다. Syrén, 윗글, 203.

MT 4절에서의 종의 대리 속죄적인 고난은 제거되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용서받음은 유지된다. MT 4ab는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족고, 우리의 간고들을 지녔다”인데, 탈군은 “그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우리의 죄악들이 그의 공적으로(for his sake) 용서될 것이다”로 번역한다. 탈군 4a에서 메시야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다.<sup>100</sup> 이것은, 코흐(Klaus Koch) 및 르도(R. le Déaut)가 관찰했듯이, 재건된 성전에서 속죄일 의식(레16:20 이하)을 행하는 대제사장의 행위를 묘사하는 메시야의 대제사장적 기능의 빛에서 볼 수 있다.<sup>101</sup> 탈군 4ab에서 질병과 고통이 죄와 동일시된다. ‘질고/간고를 진다’는 표현이 탈군에서는 ‘죄를 용서한다’로 해석된다. 탈군 이사야 33장 24절 및 46장 4절에서 히브리어 נָשַׁף(나사/들다)와 아람어 פָּרַח(사마크/용서하다)의 병치가 발견된다. 또한 1장 14절 및 2장 9절에서, 탈군은 독립적인 נָשַׁף를 ‘용서하다’의 기술적 용어로 취한다(cf. RSV 2:9).<sup>102</sup> 이것은 LXX의 전통과 일치한다. MT 4cd에서의 종의 고난은 탈군에서는 포로로써 고난 받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호와 앞에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탈군 4cd).”

5절에서는 종의 고난이 성전으로 전달된다. MT 5ab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림을 받았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몽그러졌다”인데, 탈군은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넘겨진, 성소를 지을 것이다”이다. 여기서 메시야의 고난들은 성전에 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전을 더럽힌다. 이것은 성전의 파괴를 가져온다.<sup>103</sup> 탈군 53장 5절에서 세키나(하나님의 임재)의 제거는 이 맥락에서 온 것이다.

100 종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MT 12절에 진술되었지만, 탈군에서는 그 개념이 4, 7, 11절에서도 전달되어 있다.

101 Le Déaut, R., "Aspects De L'intercession Dans Le Judaïsme Ancie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1 (1970), 56; Koch, 윗글, 140. 그들은 레위기를 참조한다. Syrén, 윗글, 211.

102 Syrén, 윗글, 204.

103 Aytoun, 윗글, 174.

메시아에 의해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sup>104</sup> 5d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가 “우리가 용서받는다”로 해석되는 것은 질병이 죄로 해석되는 전통을 반영한다.<sup>105</sup>

MT 6c는 고난의 종의 대리 속죄 사상을 명백히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וְעָלְנוּ).”<sup>106</sup> 그러나, 탈굄에서는 대리 속죄 개념이 제거되고, 단지 종의 속죄 사역(for his sake)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한다(“우리 모두의 죄들을 그의 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었다”). MT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종에게 지운 것이 강조되었고, LXX는 하나님께서 종을 우리의 죄에 넘겨준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코호는 탈굄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제사장으로서 속죄일 의식을 거행하는 자로 본다.<sup>107</sup> 모티어(Alec Motyer)는 MT 6c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는 것은 여호와가 레위기 16장 21절에 나타난 대제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08</sup>

7절에서 MT의 종의 고난은 탈굄에서 종의 기도로 바뀌거나, 민족들에게 전달된다. MT 7a “그는 압제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다”가 탈굄에서 “그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로 된다.<sup>109</sup> 7b, “그러나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탈굄에서 “그가 그의 입을 열기 전에 그가 받아들여진다”로 된다. 7c-e, “도살하기 위해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탈굄에서 “민족들의 강한 자들을 그는 양과 같이 희생에 넘겨줄 것

104 Ådna, 윗글, 210-211.

105 Kim, Jintae (Kim, J.), “Targum Isaiah 53 and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Atonement”, *Journal of Greco-Roman Christianity and Judaism* 5 (2008), 87.

106 이것을 LXX는 “그리고 여호와와 그를 우리의 죄들에 넘겨주셨다(pare, dwken).”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LXX에서 대리 속죄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וּפָגַע (to encounter, 53:6, 12)와 וּפָגַע (to pour out, 53:12)를 번역할 때 나타난다.

107 Koch, 윗글, 215.

108 Motyer, 윗글 (2018), 956.

109 MT의 ‘압제’와 ‘고난’이 탈굄에서 ‘기도’와 ‘응답’으로 바뀌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Syrén, 윗글, 204을 참조하라.

이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앞에는 자기의 입을 열거나 말할 자가 없다”로 된다. MT에서의 종의 고난의 표현은 심판 받는 열방의 모습에 대한 기술이 된다.

8절에서는 종의 죽음이 포로된 이스라엘로 해석되거나, 이방인들의 멸망으로 전달된다. MT 8a는 “압제와 재판으로 그는 취해졌다”인데, 탈굄은 “결박과 보응[복수]으로부터 그는 우리의 포로들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로 해석한다. MT에서 ‘취해졌다’는 종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탈굄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됨을 의미했다. MT 8cd는 “왜냐하면 그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야 할 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인데, 탈굄은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의 통치를 이스라엘 땅에서 앗아갈 것이며, 내 백성이 지은 죄들은 그들에게 던져질 것이다”로 해석된다. 여기서 종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받게 될 것이다.

MT 10절에서는 대리 속죄적인 종의 죽음은 제거되지만, 탈굄에서는 종이 죽지 않는다. MT 10b는 “וְעָלְנוּ אֶתְּכֶם אֶתְּכֶם”로 종의 죽음을 함축하는데, 탈굄은 “그들의 죄를 영혼에서부터 깨끗케 하기 위하여”로 번역한다. 김(Jintae Kim)에 따르면, 이것은 탈굄저자가 레위기 16장 30절을 염두에 두고 선문(Vorlage)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MT 10b는 속죄일 속죄제에서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אֶתְּכֶם(아삼, 속건제물)을 속죄일에서 죄를 씻는 속죄제로 이해한다.<sup>110</sup> 그러나 이것은 의문스럽다. אֶתְּכֶם은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물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MT 10b는 레위기 5장 17절의 속건제와 연결된다. אֶתְּכֶם 뿐만 아니라 ‘영혼’, ‘만일(אם)’이 양 처소에 공통적이기 때문이다.<sup>111</sup> MT 10c에서 나타나는 종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서 종의 썩어 영생(“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은 탈굄에서 회복된 공동체의 복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의 왕국을 볼 것이며, 아들들과 딸들을

110 Kim, J., 윗글, 92.

111 Motyer, 윗글 (2018), 979, 981.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탈굼 10c).”

MT 11a에서의 종의 대리 속죄적인 고난은 탈굼에서 백성들의 속박으로 이해되고, 종의 사역 완성 후의 만족은 백성들의 만족으로 이해된다. MT “그의 영혼의 고뇌로 인해 그는 보고 만족할 것이다”를 탈굼은 “그는 그들의 영혼을 이방인들의 속박(종됨)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대적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들의 약탈물로 만족할 것이다.”로 번역한다. MT 11c에서의 대리 속죄적인 종의 사역인 “그는 그들의 죄악을 질 것이다”는 탈굼에서 종의 기도로 바뀐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MT 12c에서의 종의 죽음이 탈굼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었다[~을 무릅쓰다] (הִשָּׁחַת לְמוֹתָא נַפְשֵׁיהּ).” 여기서 “내어 주었다”는 표현은 LXX에서는 *paredoqh* 로 대리 속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람어는 “그의 생명(죽음)을 무릅쓰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yrén에 따르면, 코흐, 칠턴 및 페이지는 탈굼의 ܩܡܐ가 여기서 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Syrén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sup>112</sup> 코흐에 따르면, 9절에서 같은 단어는 악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으나, 탈굼 신명기 24장 15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죽음을 무릅쓰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여기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렵다.<sup>113</sup> 그런데, 탈굼의 이 장에서 종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종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탈굼 제4종의 노래에서 종의 대리 속죄적인 고난이 철저하게 제거되었는데, 이 본문이 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겨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sup>114</sup>

112 Syrén, *윗글*, 211; Koch, *Messias und Sündenvergebung*, 146; Chilton, Bruce, *The Glory of Israel: The Theology and Provenience of the Isaiah Targum* (Sheffield: JSOT, 1983), 92; Page, *윗글*, 488.

113 Koch, *윗글*, 148.

114 Jeremias는 그 문장이 종의 죽음에 대한 의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반드시 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Ádna에 따르면, Koch는 아람어 본문이 실제 메시아의 죽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탈굼저자는 메시아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에 자신을 두었다고만 말한다. Jeremias, *윗글*,

탈굼은 제4종의 노래의 종을 메시아로 인식한다. 그러나 탈굼의 메시아 개념은 완전히 MT를 떠난다. 탈굼에서 메시아는 모든 고난들을 초월하는 승리적인 메시아이다. 그는 열방을 추방하며, 심판하며, 그들을 회생 제물로 넘겨준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영광을 가져온다. 그러나 MT에 기술된 모든 종의 고난들은 다른 주체들, 예컨대 이스라엘과 열방과 원수들 및 심지어 성전에게로 전달(이양)된다. 탈굼 제4종의 노래에서 종의 고난들과 죽음에 관한 모든 표현들은 종 이외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면서 철저하게 대리 속죄적인 고난의 개념이 제거되어 왔다. 탈굼의 메시아는 대리 속죄적 죽음을 당하는 고난의 종이 아니다. 에이튼은 탈굼의 제4종의 노래의 해석이 현존하는 유대교 해석 중 가장 이른 것이라고 본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전적으로 승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며, 고난과 재난을 메시아에게 귀속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한다.<sup>115</sup> 하악(Herbert Haag)은 탈굼 저자의 메시아적 고난의 묘사를 회피하는 것은, 그 견해가 현행 유대교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sup>116</sup> 말하자면, 탈굼 이사야 53장은 당대의 메시아적 개념과 화해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는 것이다.<sup>117</sup> 결론적으로 탈굼은 MT의 제4종의 노래를 히브리 본문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 5. 페시타(Peshitta)

코오이(A. van der Kooij)에 따르면, 이사야의 페시타는 주후 2세기 후반 동부 시리아에서 기원했다.<sup>118</sup> 칼레(P. E. Kahle)와 바움스타크(A. Baumstark)는

694, n. 301; Ádna, *윗글*, 219.

115 Aytoun, *윗글*, 175-176.

116 Haag, Herbert, “Der Gottesknecht Bei Deuterocesaja Im Verständnis Des Judentums”,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s Jüdischen Schicksals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40 Jahre Judaica*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5), 31.

117 Haag, *윗글*, 31.

118 Kooij, A. van der, *Die alten Textzeugen des Jesajabuches*, *OBO* 35 (1981), 258-98. Hengel, *윗글*, 78에

페시타는 탈굼에 근거한 실제적 재작업이라고 가정한다.<sup>119</sup> 펠레스(J. Perles)는 페시타가 오경에서는 탈굼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sup>120</sup> 그러나 행엘은 페시타가 그 이전의 팔레스타인 탈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121</sup> 플레셔(Paul V. M. Flesher)와 칠튼(Bruce Chilton)에 따르면, 페시타의 선문은 원-MT이며, 상당히 문자적이다.<sup>122</sup> 그린버그(Gillian Greenberg)는 페시타가 MT와 아주 근사하다고 평가한다.<sup>123</sup> 행엘은 시리아의 (유대인) 기독교인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본다.<sup>124</sup> 그린버그 역시 페시타 번역자는 크리스천이었을 것이라고 본다.<sup>125</sup> 그러나, 그린버그와 발터(Donald M. Walter)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번역에 관련했으리라고 본다.<sup>126</sup> 브래드쇼우(Vincent M. Bradshaw)에 따르면, 페시타는 유대적이지 않고 MT와 다른 부분에서 LXX를 따르지도 않는다.<sup>127</sup> 페시타의 종의 노래들에서 히브리 본문과 수리아어 사이의 근접성은 아주 탁월하다.<sup>128</sup> 따라서 페시타는 MT의 신학을 대부분 수용

서 재인용.

119 de Moor, Johannes C. and Floris Sepmeyer, "The Peshitta and the Targum of Joshua", Piet B. Dirksen and Arie van der Kooij (ed.), *The Peshitta as a Translation. Papers Read at the II Peshitta Symposium Held at Leiden 19-21 August 1993* (Monographs of the Peshitta Institute Leiden 8; Leiden: Brill, 1995), 129; Kahle, P. E., *The Cairo Genita*, 2nd ed., (Oxford: 1959), 265-283; Baumstark, A., *Neue orientalistische Probleme biblischer Textgeschichte, ZDVG 89* (1935), 99-111; Flesher, Paul V. M. and Bruce Chilton, *The Targums: A Critical Introduction*, 2011, 357.

120 Bradshaw, 윗글, 37.

121 Hengel, 윗글, 78.

122 Flesher and Chilton, 윗글, 358; Bradshaw, 윗글, 37.

123 Greenberg, Gillian, *Indications of the Faith of the Translator in the Peshitta to the 'Servant Songs' of Deutero-Isaiah, Aramaic Studies 2* (2004), 179; Bradshaw, 윗글, 37.

124 Hengel, 윗글, 78.

125 Greenberg, 윗글, 176.

126 Greenberg, Gillian and Walter, Donald M.,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The Syriac Peshitta Bible with English Translation: Isaiah*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2), xv.

127 Bradshaw, 윗글, 35-36.

128 Greenberg, 윗글, 178. 페시타 번역자들이 작업했던 선문은 MT와 아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근사하며, 페시타 번역자들은 거의 항상 선문의 의미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종종 어려운 히브리어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작은 실수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자는 선문의 의미를 세심하게 번역하는 데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했으리라고 짐작된다. 우리는 제4 종의 노래의 본문을 위해 키라즈(George A. Kiraz)와 발리(Joseph Bali)의 *The Syriac Peshitta Bible with English Translation: Isaiah*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페시타의 번역과 제4 종의 노래에 관한 이해를 분석한다.<sup>129</sup>

129 다음은 제4 종의 노래의 페시타 역본 전문이다. Kiraz, George A. and Joseph Bali, *The Syriac Peshitta Bible with English Translation: Isaiah*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2), 259, 261, 263.

- 13 보라! 내 종이 이해한다. 그는 고양되었고, 들어 울려졌고, 매우 높여졌다.
- 14 그에 관해서는 많은 자들이 말이 없게 될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모습은 사람의 것보다 망가졌고, 그의 얼굴은 인간의 것보다 (더 망가졌다.)
- 15 이 자가 많은 나라들을 정결하게 한다. 그에 관해서 왕들은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 1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여호와와 그의 팔이 계시되었느냐?
- 2 그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로 자랐고, 메마른 땅에서부터 (나오는) 뿌리로서 (자랐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는 그에게 (좋아할 만한) 모습이 없었음을 보았고, 우리는 그를 부인했다.
- 3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고 굴욕을 당했고(humiliated),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친숙한 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부터 돌렸고,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 4 실로, 그는 우리의 고난들을 찢고, 그는 우리의 슬픔들을 감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침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으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 5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낮아졌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그의 상처들로 우리는 마음을 얻을 것이다.
- 6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었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 7 그는 가까이 오셨고, 낮아지셨으나,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끌렸다. 그러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게 유지한 양과 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8 그는 감옥[고통]에서부터 취해졌고, 법정[심판]으로부터 (취해졌다). 이 세대의 누가 (이것을) 말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는 산자의 땅에서부터 찢겼고, 내 백성의 악인들 중 몇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
- 9 악인이 그의 무덤을 주었고, 심지어 부자가 그가 죽을 때에 (무덤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괴롭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를 고난 받게 하셨다. 죄가 그의 영혼에게 두어지고, 그는 씨를 볼 것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뜻이 그의 손에서 형통할 것이다.
- 11 그의 영혼의 수고로 그는 볼 것이다. 그는 (그의) 지식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종이며, 그들의 죄들을 그가 질 것이다.
-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자들과 함께 묶을 줄 것이다; 그는 강한 자들과 함께 노략물들을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죽음에 던졌고, 그는 악한 자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페시타에서 고난의 종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이다. 페시타 52:13절에서는 탈군에 나타났던 '메시아' 용어의 삽입은 없다.<sup>130</sup> 그러나 페시타는 MT와 동일하게 종의 삼중적 고향을 말한다. “그는 고향되었고, 들어올려졌고, 매우 높여졌다.” 이것은 MT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로서의 종이 그의 사역 이후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에 관하여 말이 없게 된 것은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망가졌기 때문이다(14).<sup>131</sup> 페시타는 14a를 미래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함축한다.<sup>132</sup> 종은 많은 나라들을 정결하게 한다(15a).<sup>133</sup> 이것은 제사장적인 사역인 제의적인 화해를 말하며, 종의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한다.<sup>134</sup> 2a에서, LXX 번역자는 ‘연한 순’을 고난 받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MT를 많이 떠난다. 탈군도 연한 순을 이스라엘에 적용한다. 반면에, 페시타는 히브리어 ‘연한 순’을 ‘어린아이’로 표현하면서 메시아-종을 의미하는 MT의 분문을 유지한다.

페시타는 탈군처럼 종의 고난을 삭제하지 않으며, 대리 속죄적 죽음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4절의 페시타는 실질적으로 MT와 차이가 없다. 4ab에서 페시타는 MT의 대리적인 고난의 개념을 유지한다. 4d에서, LXX는 MT에 있는 “하나님에게 맞으며”를 생략하지만, 페시타는 MT를 유지한다.<sup>135</sup> 탈군은 MT 및 페시타와 매우 다르다. 4절에서 페시타는 종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였음을

그는 많은 자들의 죄들을 짓고, 그는 악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130 13a에서, 히브리어 לְפָנָיו를 페시타는 '이해하다'로 번역한다. לְפָנָיו 히필형의 합법적인 번역으로서, '형통하다'보다 더 잘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Bradshaw, 윗글, 38. 이것은 11절의 종의 지식과 연결된다.

131 14절에서, 처음 직접목적어는, MT와 LXX에서는 2인칭 남성 단수 '너'인데, 페시타와 탈군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 '그'이다. 페시타는 2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변화가 갑작스러우므로 매끄럽게 하려 했던 것 같다. Bradshaw, 윗글, 38. NASB에서 '내 백성'을 추가한 것은 탈군의 해석 전통을 따르는 것일 수 있다.

132 Hegermann, 윗글, 126.

133 MT는 '뿌리다'로서(히브리어 קָרַע의 히필형), MT와 페시타는 일치하는데, LXX는 '놀라게 하다'라고 번역한다. 탈군에서는 다른 번역에는 없는 "홀뜨린다"가 있다. 헬리어 번역은 다른 것들과 공통분모가 없다. 페시타 역은 LXX보다는 MT를 따르는 것이다. Bradshaw, 윗글, 39.

134 Hegeramnn, 윗글, 126, 127.

135 LXX는 하나님의 홀독한 모습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app는 이것을 MT로부터 속죄를 도려 내는 LXX의 주요 양상 중 하나라고 본다. Sapp, 윗글, 176.

을 강조하며, 질병을 당했다는 해석을 회피한다.<sup>136</sup> 5a가 MT에서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들을 인해 찢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공개졌다[으깨졌다]”인데, 페시타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음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낮아졌다”로 번역된다. 페시타는 히브리어 לְפָנָיו (“찢림을 받다”)를 “죽이다”로 해석하는데,<sup>137</sup> 이는 종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였음을 의미한다.<sup>138</sup> 이로써 페시타는 MT보다 더 나아가 종의 죽음을 확인한다. 페시타는 히브리어 ‘공개졌다’를 ‘낮아졌다’로 번역하면서 종이 당한 행위보다 그 행위의 결과에 주목한다. 5d에서 치유가 미래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메시아적인 해석의 징표이며, 헤게어만은 이를 최후의 심판에서의 용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sup>139</sup>

7a에서, MT는 “그는 압제를 받았다”인데, 페시타는 “그는 가까이 오셨다”이다. 페시타 번역자는 히브리어 וָקָם(나가쉬/압제를 받다)를 וָקָם(나가쉬/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로 이해한 듯하다.<sup>140</sup> 헤게어만은 이것을 고난의 전조로서 종의 마음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표현이라고 이해한다.<sup>141</sup>

8절에서 종은 정죄와 사형선고를 받는다. 8a에서 페시타는 히브리어 מִשְׁפָּט(오체르/강압, 억제)를 ‘투옥, 감금, 감옥’으로 번역하고, 히브리어 מִשְׁפָּט(미쉬파트/재판, 정의, 통치)를 ‘재판, 법정’으로 번역한다. 이 단어들은 좀 더 매끄러운 의미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도입되었을 수 있다.<sup>142</sup> ‘취해졌다’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종은 감옥에서 나와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MT 8b에서는 ‘세대’가 목적어인데, 페시타에서는 그것이 주어의 부분으로 사용된다. 히브리어 ‘생각하다’ 대신 페시타는 ‘말하다’를 채택한다. 페시

136 Hegermann, 윗글, 101.

137 이는 히브리 단어가 갖는 내포적 의미에 대한 기독교인의 해석일 수 있다. Bradshaw, 윗글, 40.

138 Hegermann, 윗글, 101.

139 윗글, 102, 146.

140 히브리 단어에서의 וָקָם과 וָקָם은 페시타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Bradshaw, 윗글, 40.

141 Hegermann, 윗글, 103.

142 Greenberg는 “사53:8에서, 페시타는 몇몇 문법적 요점에서 의미를 잘 통치기 위해 MT와 다르다”고 본다. Greenberg, 윗글, 186.

타 8c에서 ‘찢겼고’는 ‘끊어졌고’와 같은 의미이다. 8d에서 MT는 “재앙(צָרָה, 네가)이 그들에게 임해야 할 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인데, 페시타는 “내 백성의 악인들 중 몇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히, פָּגַע)”로 번역한다. 겔스톤(Gelston)은 페시타 번역자가 명사를 더 나은 번역을 위해 동사로 바꿨을 것이라고 제안한다.<sup>143</sup> 그러나, 페시타 번역자는 마지막 단어 יָבֹא(그들에게)를 단수로(그에게) 이해했고, צָרָה를 פָּגַע로 읽었고(번역자의 실수이든 사본상의 오류이든), פָּגַע를 명사(죄악)가 아니라 분사(행악자)로 이해했을 수 있다.<sup>144</sup>

정죄와 사형선고(8절) 후에 9절에서는 종의 무덤과 장례에 관해 언급한다. 9a의 MT 본문상 주어는 ‘그’이다. 모티어는 그것을 일반인칭 ‘사람’(One)으로 이해한다.<sup>145</sup> 그런데 페시타에서는 악인이 주어로 등장한다(원문에서 악인은 전치사 אֶת(에트/~를)와 함께 목적어로 나타난다). 9b에서도 페시타는 원문의 전치사의 목적어인 부자를 주어로 사용한다. 번역자는 אֶת를 무시했다.<sup>146</sup>

10a에서 히브리어 “질고를 당하게 하다”(לָבִיא)를 페시타는, 키라즈와 발리에 따르면, 좀더 일반적인 용어인 ‘고난받게 하다’로 대체한다.<sup>147</sup> 히브리어 어근은 대개 ‘아프다, 병들다’의 의미이다(호7:5; 미6:13; 잠13:12). 10b에서 MT의 “만일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면”을 페시타는 “죄가 그에게 두어지고(sin

was laid on him)”라고 번역한다.<sup>148</sup> 헤게어만은 אָשַׁם(아삼/속건제물)이 단순히 죄를 의미한다고 본다(레7:5, 37).<sup>149</sup>

12c에서 אָרַב(아라/[그가 자신을 죽음에] 붓다)는 페시타에서 “(자신을 죽음에) 던졌다”로 해석된다. 이것은 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헤게어만이 보듯이), 종의 죽음에 관해서는 5a와 8a 및 9ab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sup>150</sup> 헤게어만에 따르면, 12e의 ‘죄를 졌다’는 11c와 4a에서처럼 제의적인 화해가 이루어짐을 말한다(페시타 출28:38, 레10:17, 민18:1).<sup>151</sup> 이것은 52:15a에서의 ‘정결하게 하다’가 제의적인 정결과 화해임을 의미한다. 12f에서 MT와 페시타의 차이는 마지막 단어(פָּגַע 히필 미완료)의 해석이다. MT는 “그는 행악자들을 위해 기도했다(פָּגַע)”인데, 페시타는 “악인들을 만났다”이다. 칼형 פָּגַע는 “만나다”인데, 시리아어도 똑같이 ‘만나다’이다. 페시타 번역자는 이 단어를 칼형으로 이해하고 번역한 것이며, 중보기도를 의미하지 않는다.<sup>152</sup> MT와의 차이는 히브리어의 어려움 때문이지, 번역적 편견 때문이 아니다. 페시타는 12f에 관한 신약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sup>153</sup>

페시타 제4 종의 노래는 여러 부분에서 MT와 상이한 사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MT를 떠나지 않는다. 페시타는 MT의 제4 종의 노래가 갖는 대리 속죄적인 메시야의 개념을 유지한다. 페시타 제4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을 미래적인 메시야로 이해한다. 그는 대리 속죄적인 고난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므로 속죄한다. 그는 이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그는 죽으며 무덤에 묻히며, 이것은 최종 심판에서의 죄 용서를 중재한다.

143 Gelston, Anthony, “Was the Peshitta of Isaiah of Christian Origin?”,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Vol. 2: New York: Brill, 1997), 577-578.

144 번역의 차이는 주로 전치사구 יָבֹא(그들에게, 3인칭 남성 복수)로부터 시작된다. יָבֹא는 고어형으로서, 어려울 수 있다. 페시타 번역자는 단수로 이해했다(그에게). 골딩게이와 페인은 그것이 יָבֹא(죽음까지)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 Goldingay and Payne, 315. LXX가 “He was lead to death”로 번역한 것은 פָּגַע(stroke, plague)를 동사 פָּגַע로 보고, 대명사구를 명사(죽음)로 번역한 것이다.

145 Motyer, 윌글 (2018), 971. 한글 번역에서는 “그”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 원문에는 “One”으로 되어 있다. Motyer, J. A., *The Prophecy of Isaiah* (Leicester: Inter-Varsity, 1993), 435.

146 Greenberg, 윌글, 188. Hegermann은 히브리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페시타 번역자가 습관적으로 문맥에 맞추는 번역을 했다고 본다. Hegermann, 윌글, 104.

147 각주 128의 번역을 보라. Bradshaw는 페시타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로 기록된다고 말한다. Bradshaw, 윌글, 44. 그에 따르면, 종을 괴롭히거나 찌부러뜨림으로써 종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페시타 번역자에게 의미가 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어려움을 느끼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로 번역한다.

148 “אָשַׁם אֶת אֲשַׁם אֶת־אֲשַׁם”을 Hegermann은 “es wurde eingesetzt ein Schuldopfer in ihm”(“a guilt offering was placed in him”)으로 번역한다; Bradshaw는 이를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로 드린다”로 번역한다. Hegermann, 윌글, 105; Bradshaw, 윌글, 44. אָשַׁם의 주어를 당신(2인칭 남성 단수)으로도, 혹은 ‘그의 영혼’(3인칭 여성 단수)로도 볼 수 있다. ‘그의 영혼’이 주어라면, ‘그라고 번역할 수 있다.

149 Hegermann, 윌글, 105.

150 윌글, 107.

151 윌글, 107.

152 윌글, 108.

153 윌글, 126.

그러나 페시타의 연대에 관한 코오이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페시타가 기독교 이전 유대인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6. 결론

이 논문은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 제4 종의 노래(이사야 52:13-53:12)의 고난 받는 종을 대리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메시아로 읽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 문제는 제4 종의 노래에 관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 사이에 유대교가 어떤 관점인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의 빛을 밝혀줄 수 있다.

에레미야스, 헤게어만 및 마틴 행엘은 볼트만이나 로울리 혹은 모빙클에 반해 기독교 이전 시기의 유대교에서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대리 속죄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견해를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유대적 관점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기독교 이후의 유대교 문헌이 제4 종의 노래의 종에 대하여 대리 속죄적 메시아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탈무드 산헤드린」, 탈무드 「룻기 랍바」, 「탈무드 소타」 등에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 제4 종의 노래에 대한 메시아적 읽기가 있었다는 행엘의 견해는 그의 전제와 방법론이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행엘은 제4 종의 노래의 개별적인 문장이나 주제들에 관한 단순한 암시나 인용만으로도 그 문헌의 저자가 제4 종의 노래를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적 읽기를 했다고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암시와 의도적인 해석 사이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기독교 이전의 유대 문헌에서의 제4 종의 노래에 관한 단순한 암시만으로도 그는 쉽게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적 읽기를 발견해낸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히브리 본문의 제4 종의 노래에 나타난 종이 히브리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대로의 대리 속죄적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읽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외경 및 위경 등의 유대교 문헌과 70인역(LXX), 탈굼(Targums) 및 페시타(Peshitta)에서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메시아로 이해하는지와 그 종이 대리 속죄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행엘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기독교 이전 유대교에서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종말론적인 구속자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연성만을 가지고 대리 속죄적 메시아적 해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 문헌에서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1QIsaa 51장 5절에서 '그의 팔'이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행엘의 견해는 논쟁적이다. 1QIsaa 52장 14절의  $\text{אֲנִי־בָרִי־בְיָדִי}$ (마사흐티/내가 기름 부었다)를 메시아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같은 두루마리에서 불필요한 요드(ו)가 종종 나타나고 1QIsab에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적 해석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에스드라 4서」(「에스라 4서」) 7장 28-29절은 기독교 이전일지도 불확실하며,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죽는 메시아가 속죄 능력이 없다. 「감사 찬송집」의 고난의 종은 대리 속죄적인 능력이 없으며, 「베냐민의 유언」 3장 8절에 관해서는 행엘 자신이 대리 속죄적인 유일한 죽음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고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외경이나 위경 등의 유대교 문서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몇몇 학자들이 LXX에서 대리 속죄적인 주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LXX는 명백히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대리 속죄적으로 이해한다. LXX 4ab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로 번역하면서 대리 속죄적 고난을 이해한다. 5절에서 종은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하게 되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징계가 종에게 내려지며, 우리를 위해 종은 채찍에 맞는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의 죄들에 넘겨주셨다”는 대리 속죄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paradidwmi** (파라디도미/넘겨주다)를 포함한다. 8절에서 “그의 공평에서 그의 공평이 제거되었다(빼앗겼다)”(8a)는 MT의 종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는 듯했으나, “그의 생명이 땅에서부터 취해지고 있다”(8c)는 종의 죽음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LXX는 또한 8절에서 “내 백성의 불법을 인하여 그가 죽음에 이르렀다”(8d)라고 번역하면서, 종의 죽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LXX가 종의 대리 속죄적인 죽음이 분명한 MT 10b를 “만일 당신들이 죄에 대해 희생을 드리면”이라고 바꾼 것은 종의 대리 속죄적인 죽음을 독자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종종 대리 속죄적 개념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XX 제4 종의 노래에서 종의 대리 속죄적인 고난과 죽음의 개념은 여전히 명백하다.

그러나 LXX 번역자가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개인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52:13의 3중적 고양의 언어가 LXX 사4:2와의 연결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제4 종의 노래의 종이 고양된(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을 함축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첫째, 2절에서의 **궤** (요네크/연한 순)가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됨으로써 메시아적 함축을 갖는 MT와는 달리, LXX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킨다. 둘째, MT 10절(자신을 내어주다) 및 12절(자신을 죽음에 부여주다)에서의 종의 자발적 고난과 희생을 LXX는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종의 자발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셋째, LXX는 종의 고난을 약화시키며 종을 고난으로부터 건져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종의 고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넷째, LXX는 종을 청결을 필요로 하는 자로 묘사하므로 종의 무죄성을 무효화한다. 이것들은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가정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두드러진 사고는 집단적 해석으로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로 이해한다. 종의 고난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포로 됨이며, 그것을 통해 열방이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LXX는 MT가 가진 종의 대리 속죄적 고난과 죽음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LXX 번역자가 종을 개인적

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탈굼은 무엇보다도 탈굼 52:13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제4 종의 노래의 종이 메시아임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MT에서의 종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다. 먼저 탈굼의 메시아는 승리적인 메시아로서, 오랫동안 소망되어 왔으며, 열방을 추방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영회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MT에서의 종이 받는 모든 고난과 죽음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른 주체들에게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악인이나 심지어 성전에게로 이양된다. 탈굼 52:14에서는 종의 초라한 용모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인한 고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53:2에서는 포로 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술로 전환된다. 3절에서 사람들에게 종이 받는 멸시와 거절은 열방들이 당하는 것으로 전달되거나,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절에서의 대리 속죄적 고난은 탈굼에서 제거되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묘사된다. 또한 5절에서이 종의 고난은 성전으로 전달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진 것으로 이해한다. 6절에서의 종의 대리 속죄 사역의 개념은 제거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종의 속죄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표현된다. 7절에서 종의 고난은 종의 기도로 바뀌거나, 민족들이 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8절에서는 종의 죽음이 포로된 이스라엘로 해석되거나, 이방인들의 멸망으로 전달된다. 10절에서 종의 대리 속죄적 인 죽음이 제거되며, 종은 탈굼에서 죽지 않는다. 11절에서의 종의 대리 속죄적 고난은 백성들의 속박으로 이해되고, 종의 사역의 후의 만족은 백성들의 만족으로 전환된다. 12절에서는 MT에 반하여 종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탈굼은 제4 종의 노래의 종을 메시아로 이해하지만, 탈굼의 메시아 개념은 완전히 MT를 떠난다. 탈굼의 메시아는 승리적인 메시아로서 대리 속죄적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다른 주체들에게로 이양된다. 탈굼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메시아 개념을 표현하고 있으나, MT와의 연속성은 유지하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이 페시타의 번역자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페시타가 히브리 본문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페시타 제4종의 노래 본문은 MT와 많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페시타에서의 고난의 종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이다. 페시타 이사야 52장 13절은 MT와 같이 종의 삼중적 고양을 말함으로써 종이 메시아임을 확증한다. 또한 LXX나 탈군과는 달리 53장 2절의 '요네크'를 메시아적으로 이해하면서 MT의 관점에 머무른다. 페시타는 탈군처럼 종의 고난을 삭제하지도 않고, 대리 속죄적 죽음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4ab에서 페시타는 대리 속죄적 고난의 개념을 유지하며, 5절에서는 MT의 '쉴림을 받다'를 '죽임을 당하다'로 번역하므로 오히려 MT보다도 더 종의 죽음을 강조한다. 8절에서도 페시타는 종의 정죄와 법정에서의 사형선고 받음을 명백히 한다. 10절에서 종이 '질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종이 '고난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12절에서 페시타가 MT의 종의 죽음을 희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페시타 제4종의 노래 전체에서 종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명백하다.

그러나 페시타는 기독교 이후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페시타는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분석이 맞다면,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 문헌이나 LXX, 탈군 혹은 페시타는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 제4종의 노래의 종을 대리 속죄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드러내지 못한다.

## 7. 참고문헌

- 모티어, J. A., 「이사야 주석」(서울: 솔로몬, 2018).  
 불트만, 루돌프, 「신약 성서 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7).  
 오성호, “제4종의 노래와 신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견해들”, 「한국개혁신학」 57 (2018), 340-74.

- 오성호, 「56-66장을 중심으로 본 이사야서의 종말론 신학」(서울: 솔로몬, 2012).  
 카일, C. F. and F. 텔리치, 「이사야(하): 카일 텔리치 구약주석」(Vol. 19;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7).  
 Ådna, Jostein, “The Servant of Isaiah 53 as Triumphant and Interceding Messiah: The Reception of Isaiah 52:13-53:12 in the Targum of Isaiah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Concept of the Messiah”, Bernd Janowski and Peter Stuhlmacher (e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189-224.  
 Aytoun, Robert A.,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Targum”,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3 (1922), 172-80.  
 Baumstark, Anton and Gesellschaft Deutsche Morgenländische, *Neue Orientalistische Probleme Biblischer Textgeschichte*, ([Leipzig]: [Deutsche Morgenländische Gesellschaft, in Kommission bei F.A. Brockhaus], 1935).  
 Boyarin, Daniel, *The Jewish Gospels: The Story of the Jewish Christ* (New York: The New Press, 2013).  
 Bradshaw, Vincent M., “Provenance and the Old Testament Peshitta”, Clark's Summit University, 2018.  
 Brotzman, Ellis R., *Old Testament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6).  
 Brown, Michael L., “Jewish Interpretation of Isaiah 53”,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Encountering the Suffering Servant in Jewish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12), 61-81.

- Brownlee, Wm, H.,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Qumran Scrolls. II",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no. 135 (1954), 33-38.
- Charlesworth, James H., "The Date and Provenience of the Parables of Enoch", Darrell L. Bock and James H. Charlesworth (ed.), *Parables of Enoch: A Paradigm Shift* (London; New York: Bloomsbury, 2013), 37-57.
- Chilton, Bruce D., *The Isaiah Targum: Introduction, Translation Apparatus and Notes. The Aramaic Bible* (Vol. 11; Edinburgh: T & T Clark, 1987).
- Chilton, Bruce, *The Glory of Israel: The Theology and Provenience of the Isaiah Targum* (Sheffield: JSOT, 1983).
- de Moor, Johannes C. and Floris Sepmeyer, "The Peshitta and the Targum of Joshua", Piet B. Dirksen and Arie van der Kooij (ed.), *The Peshitta as a Translation. Papers Read at the Ii Peshitta Symposium Held at Leiden 19-21 August 1993. Monographs of the Peshitta Institute Leiden 8* (Leiden: Brill, 1995), 129-76.
- Driver, G. R., "Isaiah 52:13-53:12: The Servant of the Lord", Matthew Black and Georg Fohrer (ed.), *In Memoriam Paul Kahle* (Berlin: Verlag Alfred Töpelmann, 1968), 90-105.
- Driver, S. R. and Adolf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New York: Hermon Press, 1969).
- Ekblad, E. R., *Isaiah's Servant Poems According to the Septuagin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no place: Peeters; Hadleigh: BRAD, 2000).
- Euler, Karl Friedrich, *Die Verkündigung Vom Leidenen Gottesknecht Aus Jes 53 in Der Griechischen Bibel* (Stuttgart-Berlin: W. Kohlhammer Verlag, 1934).
- Flesher, Paul V. M. and Bruce Chilton, *The Targums : A Critical Introduction*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1).
- Gelston, Anthony, "Was the Peshitta of Isaiah of Christian Origin?",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vol 2; New York: Brill, 1997), 563-82.
- Greenberg, Gillian and Walter, Donald M.,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The Syriac Peshitta Bible with English Translation: Isaiah, xv-xxvi*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2).
- Greenberg, Gillian, "Indications of the Faith of the Translator in the Peshitta to the 'Servant Songs' of Deutero-Isaiah", *Aramaic Studies* 2, no. 2 (2004), 175-92.
- Haag, Herbert, "Der Gottesknecht Bei Deuterocesaja Im Verständnis Des Judentums",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s Jüdischen Schicksals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40 Jahre Judaica*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5), 23-36.
- Hahn, Ferdinand,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Ihre Geschichte im frühen Christ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 Hegermann, Harald, *Jesaja 53 in Hexapla, Targum und Peschitt* (Gutersloh: Bertelsman, 1954).
- Hengel, Martin, "The Effective History of Isaiah 53 in the Pre-Christian Period", Bernd Janowski and Peter Stuhlmacher (e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75-146.
- <http://christianity.stackexchange.com/questions/43217/is-there-evidence->

that-isaiah-53-was-viewed-as-a-messianic-prophecy-within-judai  
(2020.3.19. 접속)  
<https://juchre.org/talmud/sotah/sotah1.htm#14a>(2020.3.19. 접속)  
 Jeremias, Jörg, *TDNT* (Vol. V), 654-717.  
 Kahle, P. E., *The Cairo Genita* (Oxford, 1959).  
 Kim, Hyukki, “Textual Tradition in Hebrew and Greek: Isaiah 52:13-53:12”,  
 2008.  
 Kim, Jintae, “Targum Isaiah 53 and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Atonement”, *Journal of Greco-Roman Christianity and Judaism* 5 (2008),  
 81-98.  
 Kiraz, George Anton, et al., *The Syriac Peshitta Bible with English Translation: Isaiah*.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2).  
 Knohl, Israel, “The Suffering Servant: From Isaiah to Dead Scrolls”, Deborah A Green and Laura Suzanne Lieber (ed.), *Scriptural Exegesis: The Shapes of Culture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Essays in Honour of Michael Fishba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89-104.  
 Koch, Klaus, “Messias und Sündenvergebung in Jesaja 53, Targum: Ein Beitrag zur der Praxis der Aramäischen Bibelübersetzung”,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3,  
 no. 2 (1972), 117-48.  
 Kooij, Arie van der, “Die Alten Textzeugen des Jesajabuches E. Beitr. Zur Textgeschichte D. Alten Testaments”, Univ.-Verl., 1981. /z-wcorg/.  
 Kooij, Arie van der, “Die Alten Textzeugen Des Jesajabuches”, *OBO* 35  
 (1981), 258-98.  
 Laato, Antti, *Who Is the Servant of Lord?: Jewish and Christaian Interpretations on Isaiah 53 from Antiquity to the Middle Ages* (Turku [etc.]:  
 Abo Akademi University [etc.], 2012).

Le Déaut, R., “Aspects De L’intercession Dans Le Judäsme Ancie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 no. 1 (1970), 35-57.  
 Martyr, Justin, *Dialogue with Tripho, a Jew*.  
 Motyer, J. A., *The Prophecy of Isaiah* (Leicester: Inter-Varsity, 1993).  
 Mowinckel, Sigmund, *He That Cometh (Han Som Kommer): The Messiah Concept in the Old Testament and Later Judaism* (Oxford: Basil  
 Blackwell, 1959).  
 Oh, Abraham Sung Ho. “Jesus and the Fourth Servant Song: A Review of Some Recent Proposals”, *Canon & Culture* 12.2 (2018), 187-222.  
 Page, Sydney H. T., “The Suffering Servant between the Testaments”, *New Testament Studies* 31, no. 4 (2009), 481-97.  
 Puech, E. “Fragments d’un Apocryphe de Lévi et le personnage Eschatologique, 4QtestLévic-d (?) Et 4QAJa”, J. Trebolle Barrera and L. Vegas Montaner (ed.), *The Madrid Qumran Congress* (vol 2; 1992),  
 449-501.  
 Rabinowitz, Louis I., *Midrash Rabbah: Ruth* (London: Soncino Press, 1939).  
 Rowley, Harold Henr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Oxford, Oxon.: Blackwell, 1965).  
 Sapp, David A., “읽글, and MT Versions of Isaiah 53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Atonement”, William H. Bellinger, Jr. and William R. Farmer (ed.),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170-92.  
 Syrén, Roger, “Targum Isaiah 52:13-53:12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Jorunal of Jewish Studies* 40 (1989), 201-12.

## 검색어

제4종의 노래

유대교 문헌

LXX

탈굼

페시타

#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the Fourth Servant Song in the Earliest Translations and Jewish Literature: Focused on the Vicarious Suffering of the Messiah

Abraham Sung Ho Oh,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Fourth Servant Song (Isa 52:13-53:12; FSS hereafter) has been understood and transmitted in the pre-Christian Judaism. This issue may shed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pre-Christian Jewish view that takes in the continuum of the understanding of the FSS between the OT and the NT. Our purpose is to check whether the suffering servant of the FSS has been read as the Messiah being in charge of vicarious atonement in the pre-Christian Judaism.

To this end, we examine the Jewish literature such as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as well as the first three translations of the Hebrew text, that is, LXX, Targum, and Peshitta. There has been no pre-Christian Jewish literature so far that had understanding with certainty of the Servant of the FSS as the vicarious Messiah.

In LXX, the suffering servant has the vicarious atonement ministry, bu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ervant is an individual Messiah. The servant of the Targum is a Messiah, but he is a victorious Messiah rather than a vicarious Messiah, and the suffering, death, and atoning ministry of the Servant in the MT are completely transferred to other subjects. In Peshitta, the vicarious ministry of the Messiah is preserved,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it is pre-Christian and of Jewish perspective.

In conclusion, pre-Christian Jewish literature as well as LXX, Targum, or Peshitta does not display clear evidence that pre-Christian Judaism understood the Servant of the FSS as the vicarious Messiah.

## Keywords

the Fourth Servant Song

Jewish literature

LXX

Targum

Peshitta

- 투고일: 2020년 4월 6일
- 심사일: 2020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www.kci.go.kr](http://www.kci.go.kr)